

유란시아서

<< [제 184 편](#) | [부분](#) | [내용](#) | [제 186 편](#) >>

제 185 편

빌라도 앞에서 열린 재판

185:0.1 (1987.1) 서기 30년, 4월 7일, 이 금요일 아침 6시가 조금 지난 뒤에, **예수**는 로마인 집정관 **빌라도** 앞으로 끌려왔는데, 그는 **시리아** 총독의 직접 감독 하에 **유대 · 사마리아 · 이두미아**를 다스렸다. 성전 경비원들이 밧줄에 묶인 주를 로마인 총독 앞으로 인도했고, **산헤드린** 법정 (주로 **사두개인들**), **가롯 유다**, 대사제 **가야바**를 포함하여 약 50명의 고발자와 사도 **요한**이 그를 따랐다. **안나스**는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185:0.2 (1987.2) **사람의 아들**을 체포하는 데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려고 전날 저녁에 허가를 얻은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일찍 그 앞에 끌려오리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일어나 있었고 이른 아침에 찾아온 이 무리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재판은 집정관 관저 앞에서 진행하도록 주선되었는데, 이것은 **안토니아** 요새에 덧붙여 지은 건물이었고, **빌라도**와 그 아내는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이 요새를 그들의 본부로 삼았다.

185:0.3 (1987.3) 비록 **빌라도**는 **예수**를 심문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집정관 본부 안에서 했어도, 공개 재판은 바깥에서, 정문으로 이끄는 계단에서

열렸다.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양보 조치였는데, 그들은 유월절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날, 누룩이 쓰일지 모르는 어떤 이방인 건물에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한 행위는 예식 면에서 그들을 더럽히고, 이렇게 함으로 오후에 감사 잔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또한 해가 진 뒤에, 유월절 저녁을 먹을 자격을 받기 전에, 정화(淨化) 예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185:0.4 (1987.4) 이 **유대인**들은 재판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계락을 꾸미는 동안,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지 않았는데, 그렇다 해도 예식에 따른 정결(淨潔)과 전통적 규칙을 지키는 이 모든 문제에 빈틈이 없었다. 시간 세계와 영원 속에서 인간의 복지에 티끌처럼 하찮은 것에 빈틈없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성한 성질을 가진 높고 거룩한 책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었다.

1. 본디오 빌라도

185:1.1 (1987.5) **본디오 빌라도**가 작은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어지간히 훌륭한 총독이 아니었다면, **티베리우스**는 도저히 **빌라도**가 10년 동안 **유대** 지방의 집정관(執政官)으로 남아 있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당히 훌륭한 행정가였어도, 그는 도덕적으로 비겁한 사람이었다.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자신이 맡은 과제의 성질을 이해할 만한 큰 인물은 아니었다. 이 **히브리인**들이 진짜 종교, 기꺼이 목숨을 바칠 믿음을 가졌고, 제국 전역에 걸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백만이 **예루살렘**을 신앙의 성지(聖地)로 우러러보며, **산헤드린**을 땅에서 가장 높은 법정으로 존중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185:1.2 (1988.1) **빌라도**는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 뿌리 깊은 미움은 일찍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로마**의 모든 지방 가운데, 아무 데도 **유대**보다 더 다스리기 어렵지 않았다. **빌라도**는 결코 **유대인**을 다루는데 관련된 문제들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총독의 체험을 겪으면서 아주 일찍부터, 거의 치명적이고 자살 같은 일련의 실수를 저질렀다. 바로 이러한 실수가 그를 압박할 힘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 **빌라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을 때, 그들은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위협하기만 하면 되었고, 그러면 **빌라도**는 재빨리 항복하곤 했다. 집정관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듯 보이는 것, 곧 도덕적 용기가 모자란 것은, 주로 **유대인**들과 몇 가지 논쟁을 가졌던 기억 때문이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빌라도**를 이겼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가 **티베리우스** 앞에서 자기 자리가 어찌될까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고, 수많은 경우에 총독에게 크게 불리하게 이 지식을 이용했다.

185:1.3 (1988.2) **유대인**에게 **빌라도**의 인기가 떨어진 것은 몇 가지 불행한 대결의 결과로서 생겨났다. 첫째로, 그는 우상 숭배의 상징인 모든 형상에 대하여 그들이 가진 뿌리 깊은 편견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전임자 밑에서 **로마** 군인들의 관습이었던 것처럼, 자기 군인들이 군기(軍旗)에서 **케자**의 형상을 떼어내지 않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버려 두었다. **유대인**의 큰 대표단이 군기에서 이 형상을 제거해달라고 탄원하면서 닷새 동안 **빌라도**를 기다렸다. 그는 그들의 청원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즉시 죽인다고 그들을 위협했다. **빌라도**는 자신이 회의론자였기 때문에, 강렬한 종교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 확신 때문에 죽기를 서슴지 않을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의 관저 앞에서, 반항하는 태도로 줄지어 서서, 얼굴이 땅에 닿기까지 엎드리고,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보내왔을 때, 그의 얼굴은 흠빛이 되었다. 그때 **빌라도**는 자기가 기꺼이 실행하지 않을 것을 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굴복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들의 군기에서 그 형상을 떼어내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날부터 계속 그가 대체로 **유대인** 지도자들의 번덕에 지배되고 있음을 발견했고, 이들은 이 방법으로, 실행하기 꺼려하는 것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빌라도**의 약점을 발견했다.

185:1.4 (1988.3) 그후에 **빌라도**는 땅에 떨어진 이 위신(威身)을 다시 회복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 따라서 **케자** 숭배에 보통 쓰이는 것과 같은 황제의 방패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의 담에 걸어 놓았다. **유대인**들이 항의했을 때, 그는 고떡하지 않았다. 그가 항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그들은 즉시 **로마**에 상소했고, 그러기가 무섭게 황제는 그 거슬리는 방패들을 떼어내라고 명령했다. 그 다음에 **빌라도**는 전보다도 더욱 체신이 떨어졌다.

185:1.5 (1988.4) **유대인**들이 그를 대단히 싫어하게 만든 또 다른 일은, 큰 종교적 축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오는 수백만의 방문자들을 위하여 물의 공급을 늘이는 새 수도교(水道橋)의 건축 비용을 지불하느라고 성전 금고에서 감히 돈을 가져간 것이다. 오로지 **산헤드린**이 성전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주장했고, 이 주제넘은 결정 때문에 그들은 결코 **빌라도** 규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결정의 결과로 스무 번 이상의 폭동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 심각했던 폭동 가운데 마지막 폭동은 마침 큰 무리의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들을 살인한 것과 상관이 있었다.

185:1.6 (1988.5) 갈팡질팡하는 이 **로마인** 권력자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 그리고 자기 개인의 지위를 보호하려고 **예수**를 희생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을 필요 없이 살육한 결과로 그가 마침내 쫓겨났다는 것이 중대하다. 이것은 군대를 **게리짐** 산으로 이끈 어느 거짓 **메시아**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성전의 그릇들이 묻혀 있다고 주장했고, 성스러운 그릇들이 숨겨진 장소를 약속한 대로 밝히지 못하자, 사나운 폭동들이 터졌다. 이 사건의 결과로서, **시리아** 총독은 **빌라도**를 **로마**로 오라고 명하였다. **빌라도**가 **로마**로 가는 길에 **티베리우스**가 죽었고, 그는 **유대**의 집정관으로 다시 임명되지 않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데 찬성한 판결을 후회했으나 그는 결코 완전히 그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새 황제의 눈에 들지 않게 되자, **로잔** 지방으로 은퇴했고, 거기서 후일에 목숨을 끊었다.

185:1.7 (1989.1)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는 그 여자에게 시종드는 하녀의 말을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익히 들었고, 이 하녀는 하늘나라 복음을 믿는 **페니키아인** 신자였다. **빌라도**가 죽은 뒤에, **클라우디아**는 새 소식을 전파하는 데 두드러지게 관여했다.

185:1.8 (1989.2) 이 모두가 이 비극의 금요일 오후에 벌어진 많은 것을 설명한다. 어쩌서 **유대인들**이 주제넘게 **빌라도**에게 강요했는가 — **예수**를 재판하라고 6시에 일어나게 했는가 — 또한 어쩌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는 요구를 감히 거절한다면 황제 앞에서 그를 반역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들이 서슴지 않고 위협했는가 이해하기 쉽다.

185:1.9 (1989.3) **유대인** 권력자들과 불리하게 말려든 적이 없는, 자격 있는 **로마인** 총독은 결코 피에 굶주린 이 광신자들이, 거짓된 죄목에 대하여

결백하고 잘못이 없다고 그 자신이 선언한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도록 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라고 2류인 **빌라도**를 보냈을 때, **로마**는 큰 실수, 세상사에 멀리 영향을 미치는 잘못을 저질렀다. **티베리우스**가 제국에서 가장 훌륭한 지방 행정가를 **유대인**에게 보내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2. 빌라도 앞에 예수가 나타나다

185:2.1 (1989.4) **예수**와 고발자들이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모였을 때, **로마인** 총독이 나와서 모여 있는 일행을 향하여 물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무슨 죄목으로 고발하느냐?” **예수**를 해치우는 일을 떠맡은 **사두개인**과 의원(議員)들은 **빌라도** 앞에 가서, 분명한 죄목을 자진해서 말하지 않고서, **예수**에게 선언된 사형 선고의 확인을 요구하려고 전에 굳게 결의했다. 그래서 **산헤드린** 법정의 대변인은 **빌라도**에게 대답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어야 하나이다.”

185:2.2 (1989.5) 그들이 **예수**의 죄목을 말하기 꺼려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빌라도**는 그의 죄에 관하여 그들이 밤새도록 심의하느라고 바빴던 것을 알았지만, 그들에게 대답했다: “너희가 어떤 분명한 죄목에도 합의하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너희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느냐?”

185:2.3 (1989.6) 그때 **산헤드린** 법정의 서기(書記)가 **빌라도**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며, 우리 민족을 선동하는 이자는 그가 말하고 행한 것 때문에 죽어

마땅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선포를 확인하려고 우리가 당신 앞으로 왔나이다.”

185:2.4 (1989.7) 이처럼 어물쩍 넘기려고 애쓰면서 **로마인** 총독 앞에 온 것은 **산헤드린** 의원들이 **빌라도**의 공정성과 명예와 위엄을 그다지 존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악의와 험악한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낸다. 지배 받는 이 시민들이 지방 총독 앞에 나타나서 한 사람에게 공평한 재판을 허락하기 전에, 분명한 죄목을 채택하지도 않고 그의 집행 선포를 요구하다니, 무슨 뻔뻔스러운 처사인가!

185:2.5 (1990.1) **빌라도**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가 행한 일을 얼마큼 알았고, 그가 고소당할 수 있는 죄목들은 **유대교** 율법의 침해와 상관이 되리라 짐작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그들 자체의 법정으로 회부하려고 애썼다. 또 한편, **빌라도**는 그들이 지독하게 몹시 미워하여 경멸하게 된, 자기 민족의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이 사형 선고를 선언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없다고 대중 앞에서 고백하게 만든 것을 마음 속에 고소해하였다.

185:2.6 (1990.2) **빌라도**가 아내 **클라우디아**로부터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이야기를 더 들은 것은 몇 시간 전, 자정 조금 전, 그리고 그가 **예수**를 몰래 체포하는 데 **로마** 군인들을 쓰도록 허가한 뒤였다. **클라우디아**는 얼마큼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후일에 **예수**의 복음을 믿는, 충분히 자격 있는 신자가 되었다.

185:2.7 (1990.3) **빌라도**는 이 청문회를 미루고 싶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소송 사건을 밀고 나가기로 굳게 각오한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때가 유월절 준비일의 아침이었을 뿐 아니라 이날이

금요일이었으니까, 또한 쉬고 예배하는 안식일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준비하는 날임을 알았다.

185:2.8 (1990.4) 이 **유대인들이** 불경스러운 태도로 접근하는 것에 무척 민감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하라는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이 죄수에 대하여 죄명을 제시하도록 몇 순간 기다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재판 없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노라. 그에 대하여 죄명을 문서(文書)로 제시하기 전까지, 그를 심문하는 데 찬성하지 않겠노라.”

185:2.9 (1990.5)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대사제와 다른 사람들은 법정의 서기(書記)에게 신호했고, 다음에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에 대하여 문서로 기록한 죄명을 넘겨주었다. 이 죄목은 다음과 같았다:

185:2.10 (1990.6) “우리 **산헤드린** 의원의 법정은 이 사람이 다음 죄로 인하여 그가 행악자요 우리 민족을 선동하는 자임을 발견함.

185:2.11 (1990.7) “1. 우리 국민을 타락시키고 반란을 일으키도록 우리 민족을 선동했다.

185:2.12 (1990.8) “2. 사람들이 **케자**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금했다.

185:2.13 (1990.9) “3. 자신을 **유대인**의 임금이라 부르고 새 나라를 세운다고 가르쳤다.”

185:2.14 (1990.10) **예수**는 이 중에 어떤 죄목으로도 정식으로 재판을 받거나 법적으로 선고받지 않았다. 이 죄목들이 처음에 낭독되었을 때, 듣지도 못했다. 그러나 **예수**는 집정관 관저에서 경비원들의 보호 하에

있었는데, **빌라도**는 거기서 그를 데려오게 했고, **빌라도**는 이 죄목들을 **예수**가 듣는 가운데 되풀이하라고 고집했다.

185:2.15 (1990.11) **예수**가 이 죄목들을 들었을 때, 그는 **유대인** 법정 앞에서 이 문제들에 관하여 말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음을 잘 알았고, **요한 세베대**와 그 고발자들도 알았지만, **예수**는 이 거짓 죄목들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 답변하라고 명했을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진행 전체가 불공평한 데 너무 놀라고, **예수**의 잠잠하고 훌륭한 태도에 너무 감동해서, **빌라도**는 죄수를 본부 안으로 데리고 가서 친히 심문하기로 마음먹었다.

185:2.16 (1990.12) **빌라도**는 머리 속이 헛갈렸고, 마음 속에 **유대인**들이 두려웠으며, 피에 굶주린 고발자들 앞에서, **예수**가 거기에 당당하게 서서, 말없이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정과 슬픔에 찬 애정의 빛을 띠고 그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광경 때문에, 그의 정신은 힘차게 감동을 받았다.

3. 빌라도의 개인 심문

185:3.1 (1991.1) **빌라도**는 **예수**와 **요한 세베대**를 개인 전용의 방으로 데려갔고, 경비원들을 바깥에 복도에 두었다. 죄수에게 앉으라고 청하면서 그는 **예수** 옆에 앉아서 몇 마디 물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첫째 죄목, 그가 국민을 타락시키는 자요 반란을 선동하는 자인 것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예수**와 말을 시작했다. 그때 그는 물었다: “너는 **케자**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있느냐?” **예수**는 **요한**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나 내 가르침을 들은 어느 다른 사람에게라도 물으라.” 그러자 **빌라도**는 **요한**에게 이 세금

문제에 대하여 물었고, **요한**은 주의 가르침에 관하여 증언하고, **예수**와 그의 사도들은 **케자**와 성전, 양쪽에 세금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요한에게 묻고 나서, **빌라도**는 말했다. “내가 너와 이야기한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도록 하라.” **요한**은 이 문제를 결코 밝히지 않았다.

185:3.2 (1991.2) 다음에 **빌라도**는 **예수**에게 더 물어보려고 몸을 돌이켜 말했다: “그리고 이제 너에 대한 셋째 죄목에 관하여 묻건대, 네가 **유대인**의 임금이냐?” **빌라도**의 목소리에 아마 진정하게 묻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집정관에게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빌라도**여, 네가 이것을 스스로 묻느냐, 아니면 이 다른 사람들, 나를 고발하는 자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느냐?” 그러자 얼마큼 분개하는 어조로, 총독은 대답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주사제들이 너를 잡아 넘기고 너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내게 요구하였느니라. 나는 저희가 가져온 죄목들이 정당한가 묻고, 네가 무슨 일을 했는가 나 스스로 찾아내려고 애쓸 따름이라. 내게 말하라. 네가 **유대인**의 임금이라 말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네가 새 나라를 세우려고 애썼느냐?”

185:3.3 (1991.3) 그러자 **예수**는 **빌라도**에게 대답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분명히 내 제자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내가 네 앞에 이렇게 끈에 묶여 있는 것은 내 나라가 영적 국가요, 아니 믿음을 통하여,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의 형제 단체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에 충분하니라. 이 구원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위한 것이라.”

185:3.4 (1991.4) “그러면 결국 네가 임금이냐?”하고 **빌라도**가 말했다.

예수가 대답했다: “옳도다, 내가 그런 임금이요, 내 나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믿는 아들들이 모인 가족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 내 **아버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진실까지 증언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노라. 지금도 너에게 선언하노니, 진실을 사랑하는 자마다 내 목소리를 듣느니라.”

185:3.5 (1991.5) 그러자 **빌라도**가 반은 비웃으며 반은 진지하게 말했다.
“진실, 무엇이 진실이냐 — 누가 알소냐?”

185:3.6 (1991.6) **빌라도**는 **예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없었고, 그의 영적 나라의 성질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지만, 그 죄수가 죽어 마땅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이제 확신했다. 얼굴을 맞대고 **예수**를 한 번 본 것은, 부드럽고 지쳤어도 당당하고 곧은 이 사람이 현세에 **이스라엘**의 보좌에 스스로 앉을 포부를 가진, 사납고 위험한 혁명가가 아닌 것을 **빌라도**가 확신하기에도 넉넉했다. 자기를 임금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가 **빌라도**는 얼마큼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금욕주의자의 가르침에 익숙했기 때문이고,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임금이라”고 선언했다. 반란을 선동하는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는 해롭지 않은 공상가, 결백한 광신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빌라도**는 속속들이 확신했다.

185:3.7 (1991.7) 주를 심문한 뒤에, **빌라도**는 주사제들, 그리고 **예수**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을 심문했는데, 그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고발한 죄가 그에게 있다고 생각지 않고, 그를 풀어주어야 한다 생각하노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대단히 성이 났고, 너무 성이 나서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사납게 소리를 질렀다. **산헤드린** 의원들 가운데 하나가 대담하게 **빌라도**의 옆으로 걸어와서 말했다: “이 사람은 민중을 선동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땅에 두루 계속하였나이다.

그는 해독을 끼치는 자요, 행악자이니, 당신이 이 사악한 사람을 풀어주면 오랫동안 후회하리이다.”

185:3.8 (1992.1) **빌라도**는 **예수**를 어찌할까 몰라서 난처했다. 그래서 **예수**가 일을 **갈릴리**에서 시작했다고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 유월절에 참석하려고 도시에 들린 **헤롯** 앞에 서라고 **예수**를 보내서 그 소송 사건을 결정하는 책임을 피하려고, 적어도 생각할 시간을 벌려고 생각했다. 또한 이런 표시가 관할권 문제로 생긴 수많은 오해 때문에, 자신과 **헤롯** 사이에 얼마 동안 있었던 좋지 않은 감정을 얼마큼 푸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185:3.9 (1992.2) 경비원들을 부르면서 **빌라도**는 말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 당장에 **헤롯**에게 데려가라. **헤롯**이 심문한 뒤에, 그가 발견한 것을 내게 보고하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헤롯**에게 데리고 갔다.

4. 헤롯 앞에 선 예수

185:4.1 (1992.3) **예루살렘**에 들렀을 때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제의 옛 **마카비** 궁전에서 머물렀는데, 이 옛 임금의 집으로 성전 경비원들이 **예수**를 끌고 갔고, 고발한 자들과 늘어나는 군중이 그를 뒤따라갔다. **헤롯**은 **예수**에 관하여 소문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예수**에 관하여 무척 호기심이 있었다. 이 금요일 아침에 **사람의 아들이** 앞에 섰을 때, 이 사악한 **이두미아인**은 한 순간도, **세포리스**에서 그 앞에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가 받아야 할 돈에 관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를 탄원했던 옛 시절의 그 소년을 결코 기억하지 못했는데, 소년의 아버지는 공공 (公共) 건물 중 하나에서 일하다가 사고(事故)로 돌아가셨다. **예수**의

일이 **갈릴리**에 집중되었을 때 **예수**에 대하여 크게 걱정한 적이 있었지만, **헤롯**이 아는 한, 그는 **예수**를 본 적이 없었다. **예수**가 **빌라도**와 **유대** 지방 사람들의 보호 밑에 있었으므로, 앞으로 **예수**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헤롯**은 그를 보고 싶어 했다. **헤롯**은 **예수**가 행한 기적들에 대하여 익히 들어왔고, **예수**가 무슨 이적(異蹟)을 행하는 것을 정말로 보고 싶어 하였다.

185:4.2 (1992.4) 그들이 **예수**를 **헤롯** 앞으로 데려왔을 때, 사분(四分) 군주는 그의 품위 있는 모습과 침착한 얼굴빛에 깜짝 놀랐다. **헤롯**은 **예수**에게 질문을 한 15분쯤 던졌지만, 주는 대꾸하려 하지 않았다. **헤롯**은 **예수**를 비웃고 그에게 기적을 행해 보라고 덤비었어도, **예수**는 질문에 대답하거나 비웃음에 대꾸하려 하지 않았다.

185:4.3 (1992.5) 다음에 **헤롯**은 고개를 돌려 주사제와 **사두개인**들이 고발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들이 주장하는 바 **사람의 아들**의 여러 악행에 관하여 **빌라도**가 들은 것을 모두, 그리고 덧붙여 많이 들었다. **예수**가 입을 열지도 않고 그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도 않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한동안 **예수**를 놀려댄 뒤에, 드디어 **헤롯**은 그에게 임금의 헌 자주빛 예복을 차려 입히고 도로 **빌라도**에게 보냈다. **헤롯**은 자신이 **유대** 지방에 있는 **예수**에 대하여 아무 관할권이 없음을 알았다. 마침내 **예수**를 **갈릴리**에서 몰아냈다고 믿게 되어 즐겁기는 했어도,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책임을 가진 것을 고맙게 여겼다.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결과로 그를 괴롭히던 두려움에서 결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헤롯**은 어떤 때에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요한**인가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이제 그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예수**가 감히 그의 사생활을 들추어내고 비난했던, 입이

거칠고 불 같은 선지자와 아주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5. 예수가 빌라도에게 돌아오다

185:5.1 (1993.1) 경비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도로 데리고 왔을 때, 그는 집정관 관저의 앞 계단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재판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주사제와 **산헤드린** 의원들을 한데 부르고 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민족을 타락시키고, 세금 내는 것을 금하며, **유대인**의 임금이라 주장한다는 죄목으로 그를 내 앞에 데려왔느니라. 내가 그를 심문했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노라. 사실은, 그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노라. 다음에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우리에게 도로 돌려보냈으니, 사분(四分) 군주가 똑같은 결론을 내렸음이 틀림없도다.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한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음이 분명하니라. 너희가 아직도 그가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풀어주기 전에 그를 기꺼이 매질하겠노라.”

185:5.2 (1993.2) **예수**를 석방하는 것에 **유대인**들이 항의하는 소리를 막 지르려 할 바로 그때, 유월절 축제를 기념하여 한 죄수를 놓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할 목적으로 방대한 군중이 집정관 관저로 행진하여 다가왔다. 감옥에 갇힌 어떤 죄수나 사형수를 유월절에 사면(赦免) 받도록 민중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얼마 동안 **로마** 총독들의 관습이었다. 이 군중이 한 죄수를 놓아 달라고 요청하려고 그 앞으로 왔다. **예수**가 아주 최근에 군중에게 큰 인기가 있었으므로, **예수**가 이제 그의 재판석 앞에 있는 죄인이니까, 유월절에 호의를 보이는

표시로 이 **갈릴리** 사람을 풀어줄 것을 이 무리에게 제안하여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빌라도**에게 떠올랐다.

185:5.3 (1993.3) 군중이 밀물처럼 건물의 계단으로 올라오자, **빌라도**는 그들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바라바**는 이름난 정치 선동자요, 살인한 강도, 어느 사제의 아들이었고, 최근에 **예리고** 길에서 강도짓을 하고 살인하던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 사람은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마자 처형되는 선고를 받았다.

185:5.4 (1993.4) **빌라도**는 일어서서, 주사제들이 **예수**를 그에게 데려왔고, 주사제들은 어떤 죄목으로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를 구한다는 것, 그는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군중에게 설명했다.

빌라도는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놓아주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냐, 이 살인자 **바라바**냐, 아니면 이 **갈릴리** 사람 **예수**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자, 주사제와 **산헤드린** 의원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바라바, 바라바!**” 주사제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할 생각이 있음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그를 죽이라는 아우성에 재빨리 합세했고, 한편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크게 소리쳤다.

185:5.5 (1993.5) 이보다 며칠 전에 군중은 **예수**를 경외하는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고 나서, 이제 주사제와 권력자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서 생사가 걸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폭도들은 우러러보지 않았다. 성전 바깥으로 환전상과 상인들을 몰아낼 때 **예수**는 민중의 눈에 영웅일 수 있었지만, 적들의 손에서 생사가 걸린 재판을 받는, 저항하지 않는 죄수일 때는 그렇지 않았다.

185:5.6 (1993.6) 주사제들이 **예수**의 피를 보려고 소리치면서, 악명 높은 살인자를 용서해달라고 악쓰는 광경을 보고서 **빌라도**는 화가 치밀었다. 그들이 악의(惡意)와 증오에 차 있음을 보았고, 그들의

편견과 질투를 눈치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죄가 상징적으로 자신을 **유대인**의 임금이라 부른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사람보다 살인자의 목숨을 살려달라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가 뱉을 현명한 말이 아니었다. **유대인**은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었고, 지금 **로마**의 정치에 지배되고 있지만, 권력과 영광을 크게 나타내고 이방인의 사슬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희망하였다.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체포되어, 죽어 마땅한 죄로 고발당한 선생, 태도가 온순한 이 선생이, “**유대인**의 임금”이라고 언급된다는 암시에 그들은 **빌라도**가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분개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논평이 그들 민족의 존재에서 성스럽고 영예롭게 여긴 모든 것을 모욕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껏 목청이 터져라 힘차게 외쳤다.

185:5.7 (1994.1) 고발당한 죄목에 대하여 **예수**가 결백한 것을 **빌라도**는 알았고 그가 공정하고 용기 있는 재판관이었다면 **예수**를 무죄로 하고 풀어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성난 **유대인**들을 무시하기가 두려웠고 자기 임무를 행하기를 망설이는 동안에, 한 사자(使者)가 다가와서 아내 **클라우디아**가 보낸, 밀봉한 서신을 그에게 내밀었다.

185:5.8 (1994.2) **빌라도**는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더 진행하기 전에, 막 받은 서신(書信)을 읽기를 바란다는 뜻을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렸다. 아내가 보낸 이 편지를 뜯고서 **빌라도**는 읽었다: “저희가 **예수**라고 부르는, 이 결백하고 공정한 사람과 당신이 아무 상관도 하지 말기를 내가 비나이다. 그 사람 때문에 지난 밤 꿈 속에서 많이 고생하였나이다.” **클라우디아**로부터 온 이 쪽지는 **빌라도**를 크게 흥분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 문제의 판결을 늦추었을 뿐 아니라, 불행하게도 **유대인** 권력자들이 군중 사이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라 요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외치라고 사람들을 재촉할 시간을 상당히 마련해 주었다.

185:5.9 (1994.3) 마침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한번 자세를 취하며, **빌라도**는 **유대** 권력자들과 사면(赦免)을 구하는 혼합된 군중에게 물었다. “**유대인**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자를 내가 어찌하랴?”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라! 십자가에 못박아라!” 혼합된 군중한테서 나온 이 만장 일치의 요구는 부당하고 두려움에 질린 재판관 **빌라도**를 소스라치게 놀라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185:5.10 (1994.4) 다음에 한 번 더 **빌라도**는 말했다: “너희가 어째서 이 사람을 못박으려 하느냐? 무슨 악행을 그가 저질렀느냐? 누가 앞으로 나와서 그를 적대하여 증언하겠느냐?”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두둔하여 말하자, 그들은 더욱 외치기만 했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라! 십자가에 못박아라!”

185:5.11 (1994.5) 그러자 **빌라도**는 유월절 죄수를 사면하는 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다시 호소하며 말했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묻노니, 이 너희 유월절에 이 죄인들 가운데 누구를 너희에게 풀어주랴?” 다시 군중은 외쳤다, “**바라바**를 달라!”

185:5.12 (1994.6) 다음에 **빌라도**가 말했다: “내가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한 번 더 군중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박아라! 십자가에 못박아라!”

185:5.13 (1994.7) **빌라도**는 주사제와 **산헤드린** 의원들의 직접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이 폭도의 끈질긴 아우성에 더럭 겁이 났다. 그런데도 군중을 달래고 **예수**를 구하려고 적어도 한 번 더 애쓰려고 마음먹었다.

6. 빌라도의 마지막 호소

185:6.1 (1994.8) 이 금요일 아침 일찍, **빌라도**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오직 **예수**의 적들만 참가하였다. 그가 밤에 붙잡히고 이른 아침에 재판받는 것을 많은 친구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해서 또한 붙잡혀서 죽어 마땅하다고 판결을 받을까 두려워서 숨고 있었다. 주를 죽이라고 지금 외치는 군중 속에는 오직 적이라고 맹세한 사람과 쫓대 없고 생각 없는 사람들만 있었다.

185:6.2 (1995.1) **빌라도**는 그들의 동정심에 마지막으로 한번 호소하려 했다. **예수**의 피를 흘리려고 외치는 이 그릇 인도된 폭도(暴徒)의 외침을 무시하기가 두려워서, 그는 **유대인** 경비원과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부당하고 불법인 과정이었으니, **로마**의 법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도록 선고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채찍을 맞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시련을 주려고 경비원들은 관저에 딸린 지붕 없는 안뜰로 **예수**를 데리고 갔다. 그의 적들은 이 채찍질을 구경하지 않았어도 **빌라도**는 보았고, 그들이 이 고약한 학대를 마치기 전에, 그는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그만두라 지시하고 **예수**를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고 손짓했다. **예수**가 채찍질하는 기둥에 묶여 있는 동안, 매질하는 사람들이 그를 때리던 매듭진 채찍을 내려놓기 전에, 그들은 다시 그에게 자주빛 겹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이마 위에 얹었다. 그들은 갈대를 가짜 활(笏)로서 손에 쥐어 주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놀리면서 말했다: “만세, **유대인**의 임금이여!”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따귀를 때렸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쳤다.

185:6.3 (1995.2) 다음에 **빌라도**는 피 흘리고 살이 찢긴 이 죄수를 이끌고, 뒤섞인 군중 앞에 그를 내보이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보라! 다시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를 채찍질하였으니, 풀어주고자 하노라.”

185:6.4 (1995.3) 낡은 자주빛 임금 옷을 걸치고, 인자하게 생긴 이마를 찌르는 가시관을 쓰고서, **나사렛 예수**가 서 있었다. 얼굴은 피로 얼룩지고, 자세는 고통과 슬픔으로 구부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지독히 미워하는 감정에 빠지고 종교적 편견에 노예가 된 자들의 무딘 가슴에 호소할 수 없었다. 이 광경은 광대한 우주 영역을 통해서, 엄청난 몸서리를 치게 만들었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185:6.5 (1995.4) 주의 곤경을 보고 처음 충격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리자, 그들은 더 크게, 더 길게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십자가에 못박아라, 못박아라, 못박아라!”

185:6.6 (1995.5) 그들에게 동정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빌라도**는 그런 느낌에 호소하는 것이 헛일임을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걸어나가서 말했다: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것을 내가 깨닫지만, 죽어 마땅하도록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누가 그의 범죄를 선언하겠느냐?”

185:6.7 (1995.6) 그러자 바로 대사제가 앞으로 걸어나와서, **빌라도**에게 다가가면서, 성이 나서 선언했다: “우리에게는 신성한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죽어야 하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체하였음이라.” 이 말을 듣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더욱 무서웠을 뿐 아니라, 아내가 준 쪽지, 또 신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그리스** 신화를 회상하면서, 이제 그는 **예수**가 아마도 신다운 인물일 것이라는 생각에 부들부들 떨었다. 군중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그동안에 그를 더

조사할까 싶어 **예수**의 팔을 붙들고 다시 그를 건물 안으로 이끌고 갔다. **빌라도**는 이제 두려워 갈피를 잡지 못했고, 미신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폭도의 완고한 태도에 시달렸다.

7. 빌라도의 마지막 회견

185:7.1 (1995.7) 두려운 느낌이 들어 떨면서, **빌라도**는 **예수**의 옆에 앉아서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정말로,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185:7.2 (1996.1) 그러나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서도, 그리고 정식으로 사형 선고 받기 전에 그에게 채찍질을 하게 한 그렇게 부당한 재판관, 사람을 두려워하며 약하고 짓대 없는 재판관이 물었을 때, **예수**는 그런 물음에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는 **빌라도**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너는 나와 말하기 싫으냐? 내가 아직도 너를 풀어놓거나 십자가에 못박게 할 권력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하늘로부터 허락받지 않았다면, 네가 나에게 아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너는 **사람의 아들**에게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는 복음을 모르니, 그다지 죄가 없도다. 나를 저버리고 나를 너에게 넘긴 자들, 저희에게 죄가 더 크니라.”

185:7.3 (1996.2) **예수**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이 대화는 **빌라도**를 속속들이 놀라게 했다. 도덕적으로 겁쟁이요 재판에 약자인 이 사람은 이제 미신에 사로잡혀 **예수**를 두려워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끔찍히 무서워하는 이중의 압박 밑에서 허덕였다.

185:7.4 (1996.3) 다시 **빌라도**는 군중 앞에 나타나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이 오직 종교의 율법을 어긴 자인 것을 확신하노라. 너희는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 법에 따라서 그를 재판해야 하느니라. 그가 너희 전통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죽이는 데 내가 찬성할 것을 기대하느냐?”

185:7.5 (1996.4) **빌라도**는 **예수**를 거의 풀어주려 했는데, 그때 대사제 **가야바**가 비겁한 **로마인** 재판관에게 다가와서, **빌라도**의 얼굴에 징벌하듯 손가락을 흔들며 군중 전체가 들을 수 있게 성나서 말을 뱉었다: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케자**의 친구가 아니라, 황제가 모든 것을 알도록 내가 처리하겠노라.” 이 공개적 위협은 **빌라도**에게 너무 지나쳤다. 자기 개인의 장래가 어찌될까 하는 두려움에 이제 모든 다른 고려 사항은 빛을 잃게 되었고, 비겁한 총독은 **예수**를 재판석 앞으로 끌고 나오라 명령했다. 주가 그들 앞에 거기 서 있는 동안, 그는 **예수**를 가리키며 비웃는 투로 말했다: “너희 임금을 보라.”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그를 없애라. 십자가에 못박아라!” 그러자 **빌라도**가 잔뜩 비꼬고 빈정대며 말했다: “내가 너희 임금을 십자가에 못박으랴?”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옳소, 십자가에 못박아라! 우리에게서 **케자** 외에 아무 임금이 없소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을 무시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낼 아무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다.

8. 빌라도의 비극의 굴복

185:8.1 (1996.5) 여기 **사람의 아들**로서 육신화한 **하나님의 아들**이 섰다. 고발장 없이 붙잡히고 증거 없이 고발당했으며, 증인 없이 재판받고 선고 없이 징벌을 받았다. 그리고 그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한 불공정한 재판관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이제 곧 받을 것이었다. **예수**가 “**유대인**의 임금”이라 언급하여 그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려고 생각했다면, **빌라도**는 철저히 실패했다. **유대인**은 그러한 임금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주사제와 **사두개**인들이 “우리에게는 **케자** 외에 아무 임금이 없소이다”라는 선언은 생각이 없는 민중에게도 충격이었지만, 그 폭도들이 감히 주의 운동을 지지하려 했더라도 **예수**를 구하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

185:8.2 (1996.6) **빌라도**는 소동이나 폭동을 두려워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기간에 그런 소란이 일어나는 위험을 감히 무릅쓰지 않았다. 그는 **케자**로부터 최근에 질책을 받았고, 또 한 번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을 때 그 폭도들은 갈채했다. 다음에 그는 대야와 물 얼마큼을 달라 하고서, 거기서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결백하노라. 그를 죽여야 한다고 너희는 굳게 결심하였으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노라. 너희가 이를 책임지라. 군인들이 그를 인도하리라.” 그때 폭도들이 갈채하며 대답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쏟아질지어다.”